

4 율법에게 죽고, 하나님에게 산 자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 2:19)

그러면 율법과의 관계에서 언제 죽은 것일까요? 어떻게 죽은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 2:20)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때, 자신도 동시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모습과 죄 뿐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나의 모습,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나의 모습, 유대인으로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이방인은 죄인으로 멸시하던 나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지금 바울은, 옛 자아는 못박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자신 안에, 율법으로 정죄하는 옛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나

바울은 마치 게바와, 야고보와, 바나바를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든 사도로 부르지 않던 상관 없습니다. 당신들 중에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당신들, 당신들은 사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사도이기 이전에 십자가에 못박힌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이전에 예수님과 같이 못박힌 자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놀라운 당시에도 놀라운 고백이었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은 없다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에 안에 자신의 모든 신앙을 쏟아 넣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든, 위대한 십자가의 신학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면서, 오직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실 것이 됩니다." (갈 2:21)

오직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로 인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최진영 목사]

www.weppc.net 홈페이지에서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강해(7)

Galatians 2:15-21

지난주 수요성경강해 2022년 8월 17일 (수)
파사데나장로교회



1 하나님 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탁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유대 사도들, 그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슬그머니 도망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향해 의식하는 자라며 비난을 했고, 그들을 책망하며 설교를 계속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주어를 쓰면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 사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 2:15)

"유대인인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로서 정결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결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 '의로움'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사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로롭게 된다는 것', 이 말은 유대인들의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과 비슷한 말인데, 깨끗하지 않으면, 즉,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는, 오직 정결한 자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

2 유대인의 의

님께 경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이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모세의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법을 붙잡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로서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깨끗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법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고,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의'로 바뀌었습니다. (롬 3:25, 롬 4:25, 고전 6:11)

유대인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 그것이 다룬 어떤 율법의 규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를 통한 모세의 법을 뒤집어 완성하는 새로운 법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생각해볼 수 없는 엄청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예수의 제자, 사도들까지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마치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볼 때,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 율법과 행위

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법, 규범, 계명은 우리를 자각하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든 사람, 율법을 지키려고 몸을 치며 복종하는, 선한일을 행하려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롬3:20-24)

모든 것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위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행위, 선하게 살아가려는 노력, 착하게 살아가려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려는 나의 행동, 이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위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열매로서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선한일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때문에 기뻐 감사하게 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과의 관계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나'는 죽었습니다.